

# Grace in Action

Stories of God at work in and through the GIS community

March 2018

## 치유의 시간

2016년 2월, 제임스와 케롤린 B 선교사는 부모로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 3살 반이던 딸 루비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B 선교사 가족은 중앙 아시아 미전도 종족가운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갑자기 발병한 루비의 질병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습니다. 위독한 상태에 처한 루비는 방콕에서 6 주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임스 선교사의 본국인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루비는 다음 단계의 방사선 치료를 마쳤습니다. 루비가 뉴질랜드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루비의 두 오빠들은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케롤린과 제임스 선교사는 루비가 입원한 동안 교대로 루비를 돌보았습니다. 또한 제임스 선교사는 자신의 농업 프로젝트를 계속 감당하기 위해 중앙 아시아로 6주간, 2주간 여행을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잘 보살펴 주긴 했지만, 힘든 일정으로 온 가족이 그 댓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루비의 마지막 2차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제임스와 캐롤린 선교사는 치앙마이로 옮기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치상 제임스 선교사의 사역지와 가까워서 훨씬 수월하게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선교사 가족들이 근처에 있기도 합니다. 선교사 내외는 도시의 미디어 프로젝트, 특히 UPG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임스와 캐롤린 선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독교 국제 학교의 유익을 목도하면서 세 자녀가 GIS에 다니길 희망했습니다.

이 부분에 확신이 들기까지 의문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출신 루비의 중앙 전문의가 태국에서 열린 의료 컨퍼런스에서 방콕의 한 의사와 만났을 때, 두 의사 선생님은 루비가 치앙마이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제임스와 캐롤린 선교사 가족의 이주에 관해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케롤린 선교사는 말합니다. “GIS 교무직원은 저희들이 비자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학교에 온 첫날 부터 B 선교사 가족은 GIS의 가족들과 급우들, 교사들과 바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캐롤린 선교사는 주님께서 가족가운데 행하신 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곳으로 오면서 우리 모두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면역 체계가 손상된 어린 딸 루비도 건강 상태가 매우 호전되어 참 감사합니다.”

Grace International School exists to enable international Christian workers to remain in their field of service by providing for the educational needs of their children.

“GIS 교무직원은 저희들이 비자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